

“돌은 생명체... 온기 느껴요” 망치질은 비우고 또 비우는 구도

‘함박웃음’ 전 여는 오채현 작가

“예술가의 삶이란 끊임없이 자신의 세계를 넓혀 나가는 구도의 과정이죠. 어떤 세계를 구축해야 작가는 호칭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자신이 도달한 세계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평생 작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이 비우고 또 비우는 구도의 과정과 같죠.”

오채현 작가의 개인전 ‘함박웃음’ 전이 서울 중구 소공로 금산갤러리에서 4월 25일까지 열린다. 작가는 새, 佛, 성모, 호랑이, K.F, Happy tiger II 등 화강암으로 조각한 작품들을 통해 너털웃음과 같은 따뜻하고도 푸근한 삶의 온기를 전해준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깨달음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구도의 과정을 담은 ‘새’다. 화강석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 벽면에 배치한 이 작품은 지난 5년간 미국 뉴욕갤러리에서 3번의 전시를 열며 현지인들에게도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서양 작가들은 돌을 단순히 소재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돌을 하나의 생명체로 여기죠. 돌을 보고 만지면 온기가 느껴지고 피가 흐르는 것만 같아요. 그만큼 애정이 가요. 그래서 돌의 느낌을 온전히 살리면서 작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고민을 해요. 자연미를 그대로 살려 벽면에 배치한 작품에 뉴욕 관람객들은 매우 큰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돌로 미술작업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노동과 같다고 말하는 오 작가. 그래서 톱으로 돌을 자르고 깨고 하는 작업은 일종의 수행과도 같다. “돌을 조각하는데에는 왕도가 없어. 정말 단순한 작업이고 정성을 기울인 만큼 결과물이 나오죠. 그렇게 끊임없이 망치질을 반복하며 작업하다보면 번뇌와 망상이 가라앉고 어느새 하나의 작품이 완성돼요. 결국 단순하고 성실하게 작업해나가기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될 수



‘함박웃음’ 전을 여는 오채현 작가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연석의 美 그대로 살린
불상은 작가 내면의 거울
4월 25일까지 금산갤러리서

있습니다.” 그가 작업한 얼굴은 둥근 달덩이와 같고 표정은 저마다 미소를 머금고 있다. 특히 불보살의 얼굴은 그 평온함과 총만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다가온다. 또 그 표정들은 작가의 얼굴과도 닮아 있는 듯하다. “얼굴은 현재의 삶이 반영되는 거울과도 같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작가의 내면 혹은 삶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 작품이기도 하죠. 작가의 생각과 내면이 그대로 발가벗겨져 나오는 것이 작품이라고 한다면 조금도 삶에 소홀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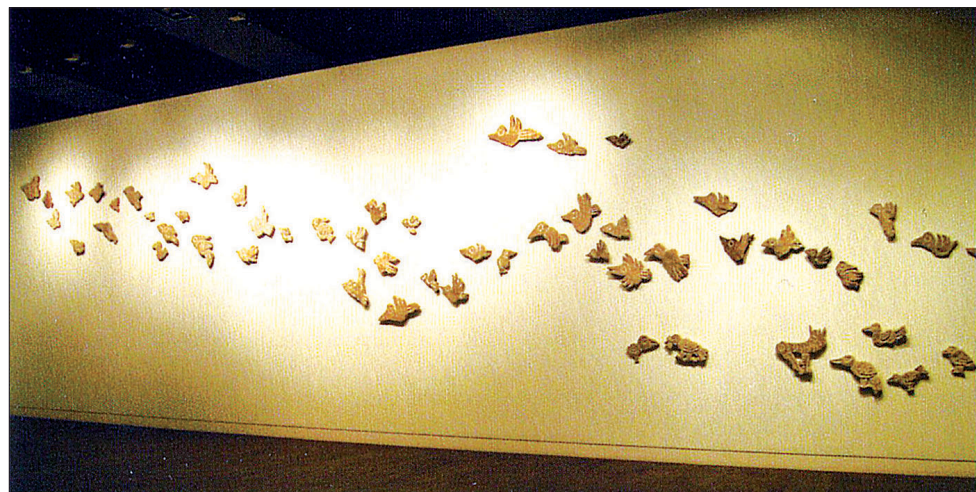
이렇게 늘 자신을 경계하며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작품에 임하는 오채현 작가.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신다면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불상 작업에 임한다고, 이런 마음이 담겨 있기에 작가의 작품들은 많은 스님들에게 사랑받는다. 강

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유명 사찰에 그의 작품 하나는 있을 정도라고 하니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한번쯤은 이 미소 머금은 작품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평창 월정사, 청도 운문사, 서울의 조계사 봉은사 상도선원, 안양 한마음선원 등 전국 유명 사찰에서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2000년도에 조계사에서 33석불 조각전을 열었어. 한창 불교계가 시끄러울 때였는데 우리 불교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연 전시였죠. 좋은 반응을 얻었어. 그때 제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셨던 스님들이 이제 불교계의 중심이 되시면서 사찰에 불상을 점안할 때 저에게 연락을 주세. 하나 둘 작업을 하다보니 제 작품을 전국 사찰에서 볼 수 있게 되었네요.”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그렇게 꾸준히 작업을 거듭해 나간다는 오채현 작가. 평생 버리고 또 만들기를 반복하며 하나의 큰 나무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아득한 길 위에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02)3789-6317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앞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새’는 구도의 과정을 말한다.



온화한 미소로 중생을 위로하는 ‘佛’

인연 따라 모이고 흠어지는 법이니

개산 1300년 넘는 법상도량

전북 김제 금산사는 모악산(母岳山 794m)을 병풍처럼 배경삼아 자리한 고찰이다. 1635년에 지어진 <금산사사적>에는 이 절이 서기 600년(백제 법왕2)에 지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1492년에 씌어진 <금산사5층석탑중창기>에는 과거불인 가섭불 때의 절터를 중흥시켰다고 하여 이 절이 불연(佛緣) 깊은 곳임을 강조하고 있다.

금산사는 진표율사(眞表律師 ?~?)에 의해 신라 경덕왕 때인 762년에서 766년 사이에 중창되며 법상종의 근본도량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많은 보수와 중건을 하며 오늘에 이르러 지금은 조계종 제17교구 본사다. 미륵전(국보 제26호)을 비롯한 많은 국보와 보물을 간직하고 있으며 근래 개산 130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불사와 학술행사 등으로 그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량을 단장했다.

금산사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도량의 배경이 되는 모악산은 신령스러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 신흥종교의 발상지로도 이름났다.

문설서방상(聞說西方聖)
금광장륙신(金光丈六身)
삼한류묘상(三韓留妙相)
일거화병진(一炬化兵塵)
보개운공영(寶蓋雲空影)
천화냉자춘(天花冷自春)
대천첨양지(大千瞻仰地)
단사정하인(檀施定何人)

이야기 들어보면 서방의 성인계신 황금색에 신광이 일 장 옥 척이시라고, 백제(百濟) 때부터 전해 온 오묘한 불상 병란(兵亂)으로 불길에 휩싸였다네, 보개엔 구름만 그림자 드러우고 떨어지는 하늘 꽃 만기 속에 봄빛이라, 삼천대천(三千大千) 중생들이 우러르는 이 불상에 시주(施主)할 이 정녕코 누구구일까?

이 시는 조선 중기의 문신 장유(張維 1587~1638)가 지은 것으로 그의 문집 <계곡선생집> 27권에 실려 있다. 장유는 정묘호란(1627) 때 왕을 강화로 모시고 갔으며 이조참판, 부제학, 대사헌 등의 벼슬을 지냈다. 병자호란(1636) 때는 공조판서였는데 최명길과 함께 강화문을 주장했다. 학문적으로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강조했다.

위의 오연율사는 제목이 ‘금산사의 일장 옥척짜리 황금색 불상이 왜란(倭亂) 때에 소실(燒失)되었는데 이 절의 승려들이 다시 세우려고 하기에 시 한 편을 짓는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15 금산사 ①



신라때 진표율사가 중창한 금산사. 미륵전과 방등계단이 도량의 중심이다.

[金山寺丈六金像(倭) 寺僧將復經始爲成一詩] 이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불상을 다시 조성하려는 금산사 스님들의 원력에 붙인 시인 셈이다.

일 장은 3m가량이고 옥 척은 180cm 정도이니 일 장 옥척은 480cm 가량 된다. 높이가 5미터 가까이 되는 불상이라 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기가 웅장한 불상을 장륙상이라고 한다. 이 시에서 말하는 장륙상이 오늘의 미륵전 안에 모셔진 미륵존상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아무튼 장유에게는 임진왜란에 의해 불탄 거대한 불상을 다시 조성하려는 금산사 스님들의 원력이 감동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휩쓸고 간 뒤의 척박한 조전 땅에서 그 불사에 과연 얼마나 동참할 것인가? 은근히 걱정하는 마음이 시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천리 길을 달려 온 스님을 위해

장유는 유학을 본분으로 삼는 선비지만, 스님들과의 교류 또한 도다웠던 모양이다. 그의 문집 <계곡선생집> 28권에 이런 시가 있다.

호산해후지(湖山邂逅地)
일숙증시정(一宿贈詩情)
부도황진리(不道黃塵裡)
환번백족향(還煩白足行)
유마인장실(維摩仍丈室)
사위즉왕성(舍衛卽王城)
취산수연재(聚散隨緣在)
녕논천구평(寧論錢錢甕)

호남의 산야에서 그대를 만나
하룻밤 자면서 서로 정을 표현했지.

누런 먼지 자욱한 속세 속으로
백옥의 걸음 옮길 줄은 전혀 뜻밖이요,
유마는 그대로 방장실(方丈室)에 앉아 있고
이 곳 도성이 바로 사위성(舍衛城).
인연 따라 모이고 흠어지는 법이니
옛날 약속 구대어 지킬 필요 뭐 있겠소.

이 시의 제목 자리에서는 시를 지은 배경을 길게 설명하고 있다. 즉 ‘계해년에 내가 사명(使命)을 받들고 호남에 내려갔다가 전주(全州) 들판의 사찰에서 시승 회옥을 만나 하룻밤을 묵고 이별 선물로 시를 지어 주었는데 그 뒤로도 가끔씩 소식을 전하며 서로 안부를 묻곤 하였다. 그런데 올해도 다 저물어 가는 매우 추운 날에 내가 병가원(病暇園)을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홀연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누구냐고 물어보니 바로 옥 상인이었다. 내 얼굴을 보려고 천 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서 달려오다니, 아, 속세에 정을 두지 않는 산승(山僧)의 처지에서 어떻게 이토록 곡진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에 가슴이 몽글하게 감동된 나머지 마침내 옛날의 운을 써서 시를 지어 주었다. [癸亥歲 余奉使湖南 完山野寺 邂逅詩僧懷玉 留一宿 贈詩而別 厥後時時寄聲相問 今年臘盡寒甚 余方移疾家居 忽有敲門者 問之乃玉上人也 爲訪余不遠千里而至 噫 山人非有世情 一何勤勤至此哉 感 之餘 遂用舊韻以贈] 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또 시의 말미에는 ‘옛날 건네 준 시에 “연사의 맹약 저버리지 말지어다”라는 표현이 있었다[原韻有蓮社莫寒盟之語]는 설명을 달고 있다. 마지막 ‘옛 맹세 [舊盟]에 대한 설명이다. 한 편의 시를 짓기까지 그 과정을 자상하게 붙이는 예는 선비들의 문집에 자주 보이며는 일이다.

천비록 天秘錄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 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秘錄
값 15,000원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한민·한웅·단군 이야기)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역사와 뿌리를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수도사가 쓴 대한민국의 고대 7,000여 년 역사이야기
값 15,000원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고,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웹진 인비록 http://www.ddblog.com.kr
값 15,000원

도서구입문의 : 전화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환)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
철도문고/불광문고/홍문당/보문불교/중앙출판/세원출판/처용서림
경주불교/영광도서/세기서림/홍지서림/탐라도서 등 전국전 판매중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물어 알게됩니다

天易六氣經
공물
궁금하면 물어보라

◆천역육기경은 우주삼원에서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삶의 돌파구!

운기·사업·소원·결혼·매매·대인·실물·가출인·출산·소송·여행·취직·시험·이사·질병·지능(직업)

이들을 알고자 하시면 육기주를 두 번 굴리세요.
문제가 답이 풀립니다!
누구나 쉽게 공물할 수 있습니다.

“책” 공물은 영원한 동반서!!!

주문처 : 1588-5654, 010-3743-9943
정가 10만원 / 계좌 : 농협 195-02-157774 박규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

신간!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65번째 저서 출간!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려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흠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 바로보인 선문염승 제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승,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3종 65권의 저서 출간!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